강진항 재취항, 마량면 주민들 나선다

추진위원회 구성…관계기관과 어촌계 사업 협의 지원

항만노동자 1만여 명 · 25톤 화물차 120여 대 운행 예정

강진항(前 신마항) 재취항을 위해 강진군 군민들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9일, 마량면 주민들은 2017년 10월 이후 중단된 강진항 화물선 재취항을 위해 정삼균(前 강진군의회 의원) 위원장을 중심으로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장, 강진군수협 이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강진항 화물선 재취항 추진위원회를 자발적으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강진항 화물선 재취항 추진위원회는 화물선 취항을 위한 방향 제시 및 관계기관·항로주변 어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강진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국비 250억 원을 들여 2016년 3월 준공됐으나, 원활한 항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2017년 10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마량항에서 제주항까지 운행한 화물선을 끝으로 운항이 잠정 중단됐다.

정삼균 추진위원장은 "강진항 화물선 재취항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마량면 주민들이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물선이 재취항 길에 오르면 제주 서귀포·성산항과 강진항을 오가며 제주에서는 물, 삼다수(생수), 귤 등을 선적하고 강진에서는 공산품 등을 선적하게 된다.

접안료 등의 항만사용료와 연인원 1만여 명의 항만노동자를 유치하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25톤 화물차 120여 대가 화물을 선적·하역하며 숙박업소와 식당, 일반상가 등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은 항로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해운항만과와 협의해 지난 8월부터 '항로 확보를 위한 시뮬레이션 용역'을 진행 중이다. 3천톤급 화물선 취항 시 조석, 조류, 파랑 관측, 항주파 영향 검토 등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거친다.

군은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운항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기관 지속적인 업무 협의와 예정항로 시범운항, 어촌계 의견청취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마량에서 제주간 화물선 운항을 재개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하나로 힘을 모은다면 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실패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성장해 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진도교육청, 무궁화 육성·보급 교육관광 명소화 추진 업무협약 체결

진도군과 진도교육지원청이 지난 9일 진도군청 2층 상황실에서 무궁화 육성·보급과 무궁화동산 교육관광 명소화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퇴색되어 가는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역사와 전통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교육사업과 연계해 행정과 교육이 함께, 지역사회발전을 목표로 상호 협력한다.

특히 양 기관은 무궁화동산 탐방, 생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무궁화동산 시설물 정비와 상시 개발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교육체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세대에게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교육과 행정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진도타워, 조선수군병영체험장(예정)과 연계해 무궁화동산이 진도군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울돌목 무궁화동산 교육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전남도비 5억원을 확보했으며, 제9회 전국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사업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도로관리심의회 통한 안전 도로환경 조성

장흥군은 9일 '2022년 4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우리주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도로굴착으로 인한 군민들의 보행안전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번 4분기 도로관리심의회에서는 수도사업소 등 3개 기관에서 신청한 상수도, 전기, 가스 매설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군에서는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사업 완료시까지 주기적인 현장점검으로 공사장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조석훈 부군수는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 도로굴착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해남서 글쓰세요" 백련재 문학의 집 입주작가 모집

문학작가 창작공간 제공…최대 5개월간 머물며 집필 가능

해남군은 '백련재 문학의 집' 문학창작공간에 입주할 제7기 입주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백련재 문학의 집은 문학인이 머물며 창작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학창작공간으로 해남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고산 윤선도 유적지내 위치한 고즈넉한 한옥형 건물로서 총 8실(다용도실 포함), 개별 약 19.44㎡의 규모로 작가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모집분야는 시(시조), 소설, 수필, 평론, 번역, 희곡, 아동 및 청소년 등이며 모집인원은 총 3명이다.

신춘문예나 문학전문지 등을 통해 등단한 지 3년 이상 된 자이면서 10년 이내 작품집 발간실적이 있는 기성작가나, 아직 등단하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훌륭한 작가가 될 가능성을 인정받아 등단작가 혹은 지도교수의 추천서 제출이 가능한 예비작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입주작가는 일체의 시설비용을 면제받는 대신 월 15일 이상 머물며 집필(필수), 소식지 발간시 원고 제출(필수), 입주작가 소개 영상 제작(선택) 등의 입주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3년 1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접수받으며, 입주기간은 3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및 땅끝순례문학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완도군, 300억 투입 산림복지단지 조성한다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완도군은 지난 8일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의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조영식 부의장, 최정욱 의원, 지민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완도군 산림복지단지는 완도읍 가용리 산 214-1번지 일원, 94ha 면적에 약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연 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 레포츠' 등 3개 지구를 조성한다.

세부 조성 계획으로는 '자연 휴양림 지구'에는 트리 하우스,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을 조성하고, '치유의 숲 지구'에는 풍욕장, 트리 데크, 치유 숲길을, '산림 레포츠 지구'에는 네트 어드벤처, 어드벤처 슬라이 등의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필수 시설과 더불어 유아를 위한 '유아 숲', 청소년들을 위한 '목재 문화 체험장', 성인들을 위한 '산림 레포츠 시설', 고령자들을 위한 '치유 숲길' 등을 조성하여 남녀노소 모두 산림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복지단지 조성 대상지는 완도읍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해양치유 및 주요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어 관광객 유입 및 관광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특성화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